

노인일자리 시장 인센티브 확보

남원시, 시장형사업 10개중 5개 최고등급 받아 2886만2000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사업 10개중 5개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아 2886만2000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기준은 월 평균 보수 31만8630원 및 평균 참여개월 수 8.4개월 이상인 사업단이 대상이다.

시장형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사업단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자율적으로 다른 업체와 경쟁하며 사업수익으로 운영되는 연중 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주요 5개 시장형 사업단들은 첫째 김부자

식품가공사업단으로 참여인원 25명이 남원을 상징하는 김부각을 가공하여 전국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확보하며 시장형사업단 중 가장 인기있고 널리 알려진 사업이다.

둘째는 면사방 국수사업단으로 참여인원 7명이 국수와 팔죽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셋째는 깨끗한 세상만들기사업단으로 참여인원 7명이 관내화교(제일고) 인월고, 운봉중, 수지초, 송동초, 원천초, 오동초등학교)와 계약을 통해 청소와 시설물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

넷째는 농산물 가공사업단으로 참여인원 20명이 밥과 도라지 등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단으로 3~6월에는 남원시 원형과 협의하여

딸기작업을 고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는 시니어마트사업단으로 참여인원 9명이 매장을 운영하여 판매 및 배달을 하여 수익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거래처로는 사회복지관, 살림노인복지센터, 살림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이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평가받은 결과 A등급을 받아 지금까지 총 1억7308만2000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면서 "내년에는 시장형사업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전체 사업단이 A등급을 받아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에 5성급 치유 명상센터 생긴다

군, 삼림욕장내 건강장수 힐링교육 운영

고요한 아침 숲속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안정을 얻는 순창치유명상센터가 올해 문을 연다.

군은 인계면 쌍암리 산 169-1번지 건강장수연구소 일원 삼림욕장내 순창 숲속 치유명상센터를 본격 착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숲속치유 명상센터는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해 면역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우울 등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120㎡ 규모로 2억 7천여만원을 투자해 올해 10월 경에는 완료할 계획이다.

숲속의 맑은 공기와 새소리 등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빛의 여과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다.

군은 우선 명상센터 운영을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한 먹거리,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마이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건강장수연구소에서는 지난해 9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3,000여명이 수료했다.

순창의 건강한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와 문화를 체험하고 권위 있는 강사진으로부터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근본적 치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등 독특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을 대폭 확대한 만큼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상센터는 그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쌍암 삼림욕장에는 편백나무 숲에 500미터 가량 산책할 수 있는 숲속 데크와 쉼터가 조성돼 있고 최근에는 국화, 맥문동, 수국 등 야생화와 매실나무 등도 식재했다. 명상과 함께 숲속 산책을 통해 치유를 얻기에 최적의 공간으로 명상센터 운영시 시너지 효과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숲속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어가는 치유명상센터가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면서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해 순창을 대표하는 치유명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대상 순창공장, 아동 DISC 검사

대상(주)순창공장(공정장 임병용)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장북지역본부장 소동하)은 최근 순창지역의 아동 50여명과 함께 순창청소년문화의집에서 DISC(성격유형검사) 및 유형에 따른 모뎀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DISC 검사는 문화체험 및 다양한 활동 기회가 적은 순창지역의 어린이들이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성격유형별 모뎀활동을 통해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장철민(11세,남,가명) 아동은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내가 D(주도적) 성향인 것을 알았다. C(신중형) 성향인 친구들을 대할 때에는 다그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듣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N치즈 고속도로 홍보활동

임실군이 봄철 날들이철을 맞아 임실N치즈 체험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실엔치즈클러스터는 지난 주말(4.22~4.23)을 이용해 원주-순천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임실N치즈 홍보관에서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임실N치즈 피자만들기와 크림치즈만들기 등 체험행사 및 치즈와 유제품에 대한 편찬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군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봄 여행주간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임실N치즈를 집중 홍보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실=전충영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 육성사업 추진

어린이음악페스티벌·치즈공예체험 등 10개 분야로 진행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가 2017년 대표관광지로 본격 육성된다.

24일 임실군은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치즈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지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넘쳐나는 관광지조성할 계획이다.

2017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어린이음악페스티벌 ▲임실N치즈공예체험 ▲스타페스티벌 ▲꽃바람의 정원 ▲긴의자의 길 등 10개 분야로 진행된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오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절별 특별한 볼거리, 와 체험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개 추진된다.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됨에 따라 무료와이파이를 통한 임실군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해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한층 업그레이드되면서 올해 열릴 제3회 임실N치즈축제 역시 작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임실N치즈축제는 올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주무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에서 스위스풍의 아름다운 푸른 초원과 다양한 체험공간을

갖추고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축제 컨셉으로 관광객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가족나들이 관광객을 위해 어린이들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국어린이동요대회와 최연석세프와 함께하는 스타체프챌린지, 전국어린이치즈요리왕, 락투이 나눔행사, 인형극 등이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임실N치즈 유제품 판매장에서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전체품 20% 파격할인 행사를 마련한다.

치즈를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와 낙농체험·치즈체험·피자체험은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한우와 향토음식 등 농특산물을 판매도 확대될 계획이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군,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 12억6000만원 지원

순창군이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 오미자 식재 등 11개 사업에 12억 6천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농가소득 창출 및 재배 받는 삼락농정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올해 고소득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흥면 등을 중심으로 재배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오미자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5천여만원을 지원한다.

또 인삼재배를 위해서는 차광막 지원을 위해 1억여원을 투자한다.

양파소득사업을 위해 8ha에 2천만원, 복숭아 우산지주 설치사업에 3ha

남원시, 농업기계 안전동화 총력

곡우가 지난 요즈 봄논 들녘에서는 눈·밭 갈이와 밭작물 파종 작업에 바쁜 일손을 늘리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5~6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각종 농작업과 도로 운행이 잦은 농기계에 대하여 농업인의 생명 보호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운기, 트랙터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동화장치 부착을 완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번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마을과 농가를 방문 농업기계 안전동화장치를 현지에 방문 부착까지 줌으로써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운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일반분양 실시

임실군이 섬진강변 재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운암소재지 이주단지에 대한 2차 일반분양이 실시된다.

24일 군에 따르면 구비 137억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운암소재지 이주단지에 대한 특별분양과 잔여 미분양 용지의 1차 일반분양이 마무리된 가운데 6월에 2차 분양을 실시한다.

이번 일반분양대상은 운암면 쌍암리

849-1등 총11필지 6,384.7㎡로 1차 공고 후, 2필지가 3.3㎡당 715,224원에 낙찰돼 계약을 완료한 가운데 나머지 유찰된 9필지 분이다.

운암소재지 이주단지는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총121필지 116,516㎡ 부지로 2014년에 조성되어 현재 72세대가 이주했다.

새로 조성된 이주단지에는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등 공공시설과 작은

목욕탕과 썬암공원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일반분양용지는 아름다운 옥정호반과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와 인접해 있고, 전주와의 교통여건도 좋아서 정착해 생활하기에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운암소재지 이주단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와 가깝고 인근에 면사무소와 공공시설, 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교통여건도 좋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